

# 호들갑 댄 장마 대비에도...호우 피해 속출

### 광주·전남 곳곳 붕괴·침수 주택 담 무너져 차량 덮치고 광주시청사 내부도 비 '줄줄' 내일도 호우...추가 피해 우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여름 장마를 대비한다며 사전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 붕괴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앞으로 폭우를 동반한 본격적인 장마시절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추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루 누적 강수량은 해남 산이면이 193mm로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나주 189mm, 장흥 183.5mm, 신안 하의도 170.5mm, 함평 169.5mm, 무안 167.5mm, 강진 165mm, 고흥 153.1mm, 광주 67.6mm 등이었다.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오전 9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장동천에 설치된 너비 5m, 높이 4m의 호안블록 일부가 붕괴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9시 9분께에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 한 주택의 담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심지어 광주시청사 내부에도 비가 새는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의회동 3층과 행정동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직원들이 미끄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양동으로 빗물을 받아내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주택 18곳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새벽 2시 55분께 시간당 78.8mm의 폭우가 쏟아진 해남군 문내면 선두마을에서는 주택 13곳과 차량 6대가 침수돼 주민 2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남도는 양수기 6대를 동원해 물을 빼내는 등 복구 작업을 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자정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9건, 전남 29건 등 총 38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

단 하루 내린 장맛비로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장마철 호우 피



28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내린 장맛비로 광주시 동구 소태동 한 주택 담장이 무너져 내려 집주인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67.6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이번 비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겠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 대비 점검이 형식적이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장마철 잦은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25일 광주시 9개 관련 부서와 5개 자치구가 참여한 협업회의를 열고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는 이번엔 붕괴사고가 36개 하천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하천정비를 했다. 특히 이번엔 붕괴사고가 발생한 장동천의 경우엔 특이점 없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송주원 광주시 하천점검 담당은 "1차적으로 5개 자치구에서 점검을 실시해 특이사항이 있을시 광주시에 보고하면 시는 그때부터 점검에 나선다"면서 "자치구에서 특이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고, 광주시 36개 하천(연장 210km)을 전부 자체히 살펴볼 수도 없다. 차를 타고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이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도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28곳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지만, 호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



28일 해남군 문내면 선두마을에서 주택 13곳과 차량 6대가 침수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30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또 다시 폭우를 동반한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호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찬 기류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잠

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30일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장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기 불안정과 상층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집중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이용섭 당원명단 유출 의혹' 재수사

### 광주지검 "불분명한 부분 있어 다시 들여다 볼 것"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여 동안 끝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검은 28일 검찰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다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이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 당선인이 당원명단 유출과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이 당선인을 증거불충분으로 의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관련, "이 당선인의 이모(37)비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당선인이 지난 1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시 직접 문구를 고치는 등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장 경선 등을 대비해 당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이 비서가 광주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이 당선인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메

시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비서는 이런 사실을 이 당선인이 알게되면 누가 될까 우려해 4개월동안 숨겨오다 지난 5월에야 이 당선인에게 사실을 털어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당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수사하겠다. (검찰) 자체적으로도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핵심 사안을 간과한 부분 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장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 이들로부터 명단을 받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당선인의 비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용섭 당선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 유투버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모(45)씨의 구속영장을 28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양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촬영회에서 양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촬영 도중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당시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은 최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씨는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추행이나 강제적 촬영은 없었다며 양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 절도사건 용의자에 돈 빌린 경찰관 '징계'

### 목포경찰, 전보 발령 조치도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 관계자와 돈거래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28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최근 A경사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 등으로 징계 및 전보 발령 조치를 했다.

A경사는 절도사건 용의자로 내사했던 B씨에게 사건이 종결될 무렵 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지난 1월 "승용차 안에 현금 10여만원이 든 지갑이 없어졌다"는 절도 신고 사건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인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어놓고 간 것을 보고 돌려주려고 지갑을 가져갔으나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라며 신고한 C씨 역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A경사는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경사는 B씨한테 돈을 빌리고 20일 후 갚았다. 경찰은 A경사가 평소 아는 B씨와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라고 파악했다. 다만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목포·김병만 기자 dss6116@kwangju.co.kr

## "내 손자인 줄 알고"...치매 노인이 어린이집서 두살배기 데려가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손자와 생김새는 물론 이름도 비슷한 두살배기 남자 아이를 데려가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서행.

○...28일 경찰청장에게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광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A(78)씨가 B(2)군을 자신의 외손자

라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말한 뒤 자택으로 데려가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

○...조사 결과 A씨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손자는 다른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외손주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 우리 아이인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349,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